



“나를 사랑하고 더불어 행복한 민주시민교육”

진정한 의미의 미래학교

고산고등학교

2024학년도 교육과정 설명회

# 양육자 대상 각종 교육자료

학생, 교사, 양육자가

모두 함께 **성장하는** 학교

2024.3.19. - 3.21.

# 목 차

## 2024년도 고산고등학교

### 양육자 대상 각종 교육자료

I. 장애 인식교육 자료	1
II.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 안내	2
III. 성폭력 예방 교육	4
IV. 흡연 예방 교육	7
V. 감염병 예방 교육	9

# 1. 장애인식 교육 자료

## 시선을 바꾸면 다르게 보입니다.



무엇을 나타낸 그림일까요?

맞습니다. **장애인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평소 주변에서 보던 장애인 상징과는 달라 보입니다.

이 그림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까요?

### #부자연스럽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 표시는 1968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단순하게 표현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용 리프트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상징을 잘 살펴보면 어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팔과 다리는 로봇처럼 굳어있고, 손은 부자연스럽게 뻗어 있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휠체어를 밀고 움직일 수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디자이너 사라 헨드런과 브라이언 글렌니는 기존의 장애인 상징에 대해 '장애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입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새로운 장애인 상징을 제안합니다.

### #역동적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독립적인 사람



그들이 제안한 장애인 상징은 사람의 움직이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세상을 향해 스스로 움직이는 독립적인 한 사람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장애인 상징의 각 부분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1. 머리의 위치: 앞으로 숙여져 있는 머리는 선택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2. 팔의 각도: 뒤를 향해 있는 팔은 마치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 휠체어: 흰색 사선이 바퀴가 움직이는 것 같은 운동성을 느껴지게 합니다.

두 사람의 노력은 '엑세서블 아이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미국 전역으로 퍼졌고, 그 결과 2014년 처음으로 뉴욕주에서 장애인 상징을 변경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 시선을 바꾸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

## 장애인에 관한 오해와 편견

### 1.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

-아닙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입니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이 정상인이라는 것은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 2. 장애는 전염된다?

-절대 아닙니다! 장애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장애가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 3. '장애우'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아닙니다. 장애우라는 단어는 한자 뱃 우(友)를 사용하여 장애인을 친근하게 부르고자 만든 용어입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에게 친구라는 의미를 담아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바른 표현이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계획 안내

### 202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계획 안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 선행교육 관련 주요 내용

**제5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법률 제16300호(2019.3.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 □ 법의 적용

규제 유형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앞서서 편성	총론 및 시·도 지침을 벗어난 편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운영
선행학습 유발 행위 (교육과정 평가)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교내대회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평가

## 선행학습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3. 성폭력 예방 교육

#### 성폭력예방교육(성폭력! 바로 알고 예방하기)

##### 1 성 비위(성폭력·성추행·성희롱·성매매) 예방

성비위(성폭력·성추행·성희롱·성매매) 가해자는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며, 학생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 이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성폭력은 학생들의 집, 학교 등 학생들과 근접해 있는 곳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가정,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예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1 자주 발생하는 성 비위 행동은?

- 가. 야한 말이나 사진, 동영상을 카카오톡, 밴드로 보냄
- 나. 성장이 빠른 친구의 몸에 대해 놀리거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언급
- 다. 장난치는 척하면서 슬쩍 가슴이나 상대방의 생식기를 만짐
- 라. 무심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성 비위 범죄이며, 처벌 대상임을 자녀에게 반드시 지도하여야 합니다.

##### 2 성 비위 예방을 위한 학부모 지침 및 준수사항(자녀들과 함께 읽어보세요)

- 가.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자녀의 안전을 지킵니다. 항상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나. 성(性)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즉시 그리고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 다. 자녀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집을 오가는 길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미리 둘러봅니다.
- 라.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면 참지 말고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며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 마.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방법을 가르쳐줍니다.
- 바.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만 해도 처벌됩니다.
- 사.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구매 관련 카페나 글을 발견하면 즉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합니다.
- 아. 부모님께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줍니다.

##### 3 성 비위 피해 상담 및 지원센터

- 가. 신고전화 : 관할경찰서 국번 없이 112
- 나.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긴급전화 1388 : 성 비위 피해 관련 긴급 위기상담 및 신고전화
- 다. 한국 성폭력 상담센터 : <http://www.sisters.or.kr> (02-338-5801~2)
- 라. 사이버수사대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http://www.police.go.kr)) 접속 후 사이버범죄신고
- 마.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활용 : 가정 및 학교 근처 성범죄자 인적사항 확인 가능
- 바. 전북 해바라기센터 ☎ 063-278-0117  
아동보호전문기관(원스톱 지원센터) ☎ 063-283-1391

### ❖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b>불법 촬영</b>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등	<b>비동의의 유포, 재유포</b>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b>유통, 공유</b>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b>유포 협박</b>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b>사진 합성</b>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b>성적 괴롭힘</b>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궁금해요.

<b>Q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b>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b>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센터</b> 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T.02-735-8994)	<b>Q2.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b>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b>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b>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와 관련 연계 기관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b>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b>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b>Q3. 삭제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b> 네. 기본적인 상담과 삭제 지원은 모두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b>무료로 지원</b>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일정 주기로 <b>삭제 지원 결과/모니터링 리포트</b> 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유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의료·심리치유 지원 등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b>Q4.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b> 우선 <b>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접수</b> 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유형에 따른 삭제 지원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삭제 지원이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① <b>직접 소통 가능한 연락처</b> , ② <b>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b> , ③ <b>피해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의 캡처화면</b> , ④ <b>사이트의 URL</b> , ⑤ <b>원본 영상</b> 등이 있습니다.
<b>Q5.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삭제가 되나요?</b> 피해 촬영물이 업로드되는 플랫폼에 따라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평균적으로 3~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b>Q6.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b> <b>지속적으로 상담 및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b> 삭제지원의 경우 피해 촬영물 유포 범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집중지원 후 추가 유포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재유포를 포함하여 피해 촬영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집중지원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b>Q7.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b>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경찰 신고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b>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유포 시기, 유포 ID 등) 확보</b> 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삭제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Q8. 가해자가 가족이라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b> <b>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b> 등을 통하여 연계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쉼터 연계 이외에도 무료 법률·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디지털 성범죄 통념깨기

#### 0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 아닌가요? **No!**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며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02.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나요? **No!**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 03.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No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삭제지원 비용이 무료이며, 삭제 지원 외의 상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04.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영상(사진)을 삭제했는데, 영상(사진)이 또 유포되었어요. 재유포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No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top.or.kr>)

## ☞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신고기관 안내

기관	전화번호
전북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	063-280-8133
전북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	063-280-8134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063-280-9232

## 3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활용 안내

### 「스마트폰 설치 및 이용방법」



① 앱스토어에서 '성범죄자 알림e' 앱 검색



② 본인인증



③ 지도검색



④ 성범죄자 확인

가. 조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 성명, 사진, 나이, 신체정보, 실제거주지, 전자장치 등  
나. 알림기능으로 설정 :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거주하는 성 범죄자를 음성과 메시지로 제공 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흡연 예방 교육

### 흡연예방교육(금연, 가정에서 함께 해주세요)

매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청소년 온라인건강행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 중 흡연시작 연령이 12.7세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

#### 1 청소년 흡연의 특성

- 흡연시작시기 : 중3-고1 사이에 가장 많이 시작(최근 연령이 점점 낮아짐)
- 흡연량 : 남학생의 약 80%, 여학생의 80% 정도가 10개피 미만
- 가족흡연 : 흡연자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흡연을 많이 합니다.
- 학교생활 : 불만족 할수록, 흡연하는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이 길수록, 흡연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흡연을 많이 합니다.
- 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의 반응 : 부모가 자신의 흡연여부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인정할 것이라고 인지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을 많이 합니다.
- 부모의 양육태도 : 거부적-통제적이라고 지각할수록(애정적-자율적인 양육태도에 비교할 때) 흡연을 많이 합니다.
- 정서 : 불안감이 높고 자아존중도와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흡연을 많이 합니다.

#### 2 어린 나이의 흡연은 훨씬 더 해롭다

- 어릴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심신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담배 속 온갖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중독이 심해지고 신체발달(특히 폐의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기의 흡연습관은 성인기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니코틴 의존에서 더 나아가 알코올(술)이나 다른 의존성 약물로 중독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3 부모의 흡연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부모의 흡연은 흡연에 대한 자녀의 인식과 행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친구와 가족의 흡연이 흡연 욕구를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간접흡연과 3차 흡연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4 담배 회사의 주 고객은 10대

평생 흡연 가능 기간이 짧은 성인보다 그 기간이 긴 청소년은 주요 마케팅 대상이 되고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는 담배회사의 대표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편의점 계산대 주변 혹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간식거리 옆에 담배광고물을 설치하고 또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 5 전자담배가 덜 해로울까?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공인된 근거는 없으며 전자담배도 담배이기에 중독을 야기하고 사용 시 건강에 유해합니다. 최근 담배회사들이 내세우는 ‘위험감소’, ‘냄새없는’, ‘연기 없는’ 등의 담배제품은 교묘한 담배 산업전략의 좋은 예로서 대중적인 메시지,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로 신종 담배제품들이 금연을 위한 해결책의 일부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 6 술이나 담배를 권하는 친구에게 ‘NO!’라고 말하기

담배나 술, 약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 명의 친구와 함께 웃으며 놀다가 갑자기 친구들이 담배나 술, 약물을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의 말들을 연습해 봅시다.

- 고마워. 그러나 나는 마시고 싶지 않아.
- 속이 메스꺼려 술은 안 마시는 것이 좋겠어.
- 난 장염 치료중이어서 술은 마실 수 없어.
- 폐가 약해 담배를 피우면 기침을 심하게 해.
- 난 오렌지쥬스가 좋아. 쥬스 마실래.
- 노래나 책 등으로 화제를 바꾼다.
- 우리 농구하러 가지 않을래?
- 난 지금 가야 해. 약속이 있어 등

호기심으로 시작한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약물중독 및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흡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5. 감염병 예방 교육

### 감염병 예방 교육

#### 1.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병명	초기 증상	등교 중지 기간
홍역	귀 뒤에서부터 발진, 발열	발진 후 5일까지
수두	발열,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인플루엔자	38도 이상 고열, 관절통, 두통, 호흡기 증상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지나면 등교가능
유행성 각결막염	안구 충혈, 안구통, 눈부심, 가려움증	의사가 등교해도 된다는 진단 (1~2주)
코로나19	코물, 기침, 두통, 호흡곤란, 인후통 등	5일 권고

#### 2.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 학생이 타인에게 전염가능한 감염병에 걸려 등교중지를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 합니다.

##### ▣ 등교중지 대상자

- 등교중지 대상자
  - ➡ 법정감염병 환자, 법정감염병 의심환자, 법정감염병 병원체 보유자
  - ➡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 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 등교중지 제외(결석 시 병결로 처리)
  - ➡ 의사의 진단에 의해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 등교중지 방법

-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한 후 병원에 갑니다. (발열이나 설사 등 진단을 요하는 경우)
-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담임선생님께 전화 연락을 하시고 격리 치료를 합니다.
- 치료, 완치 후 **진료 확인서(또는 진단서, 소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단, 확인서에 감염성 **질환명, 격리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격리 치료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됨 )

#### 3 감염병 전파방지

- 가. 학생이 열이 나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 상태로 등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 나.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 다. 해마다 감염병이 유행하고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합니다.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므로 단체생활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여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합니다.